

“김정은,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남·북·미 협의 의사”

‘대북특사단’ 정의용, 브리핑

“트럼프에 대한 신뢰 변함 없어
인색한 국제 평가에 어려움 토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과 북은 이달 18~2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와 한미 양국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및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핵화 시한 제시’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

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비핵화 과정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풍계리 간도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는 간도 3분의 2가 완전히 봉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정 실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이런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동시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檢, 이명박에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수백억 뇌물수수·횡령 등 16개 혐의
“권력 남용·법치주의 훼손에도
진실 은폐·책임전가에만 급급”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부장판사)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

또한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 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함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범종 기자 joker@

檢, ‘비자금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6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서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집행과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섰다.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예산 신설 추진 단계에서 이미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한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문건에는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쪼개 인출해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사용처에 대해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범종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 감형

딸은 징역 4년·형은 1년 선고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해 “형사법 책임주의원칙의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종로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낮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트리티 차량(SUV)에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듣던 이영학은 고개 숙인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이날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학의 허위 후원금 모금에 도움을 준 형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범종 기자

‘식중독균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유죄

벌금 5000만원·임직원들 집유

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는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제품을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지만,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100만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2심은 ‘3M 건조배지필름법’만 이용해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는 해당 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부적합 웨하스 약 72만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됐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